

70세 열혈남, 미래를 질주하다

할리 데이비슨과 아우토반을 열망하는 젊은 할아버지
그에게 나이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남치는 열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진정한 청년 - 그가 눈부십니다.
삼양은 화학, 생명공학, 식품사업을 통해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는 당신과 함께 합니다.

筆巖書院 山仰會報

◇ 目次 ◇

- | | |
|--------------------------|------------------------|
| 1. ... 現代 韓國儒敎의 具現方向 | 9. ... 外先祖 河西 金麟厚先生의 삶 |
| 3. ... 復性賦 | 13. ... 書院消息 |
| 4. ... 正祖大王御製賜祭文 | 14. ... 河西先生 追慕 漢詩 白日場 |
| 7. ... 山仰會 創立의 動機와 活成化方案 | 16. ... 山仰會員 住所錄 |
| 8. ... 山仰會 沿革 및 活動事項 | 24. ... 誠金內譯 및 新入會員 |



祐東祠 : 필암서원의 祠宇로 河西 金麟厚선생과 鼓巖 梁子澂公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편액은 朱子의 글씨를 集字하였다.

(515-812) 全南 長城郡 黃龍面 筆岩里 377, 電話: 061-394-0833
(501-050) 光州광역시 동구 대의동 57-5 (4층) 대동문화 內 (電話: 062-233-1313)
發行人: 山仰會長 安晉吾

현대 한국유교의 구현방향

琴章泰(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우리시대의 한국유교는 이제 배타적 우월주의를 표방하던 조선시대의 유교와 같을 수 없다. 유교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그 전통의 형식을 답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이루어 갔던 본질적 가치를 우리 시대의 현실 속에서 재적용하는 것이요, 역사적 전통의 경험을 통해 거두었던 성과를 재음미하고 실패나 폐단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시대의 한국 유교가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은 조화와 포괄성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유교에서도 주류를 이루었던 道學이념이 순수성과 엄밀성을 추구하는 정통주의에 배타적 태도를 관철하였던 것은 다양한 주장이 서로 충돌하는 데 따른 사회의 분열을 막고 통합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엄밀하게 순수한 하나의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끊임없이 순수한 정통을 주장하는 견해가 세분되고 정통성에 대한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을 異端으로 비판하고 배척하는 태도가 격렬하게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조선 후기 유교사회에서는 정통성을 거부하고 다원성을 수용하는 개방적 입장을 내세운 實學이 등장하였고, 實學은 道學의 정통주의에서 매몰되었던 민족문

화에 대한 관심을 계발하고 서구문물을 포함하여 세계를 향해 열린 자세를 보여주었다. 우리 시대의 유교는 다시 도학과 실학을 통합하는 유교로서 인간과 우주에 대한 형이상학적 통찰을 지니면서도 현실문제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실용적 대답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유교는 먼저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에서 독선적이고 배타적 우월성을 내세우는 입장을 이미 버리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종교들과 대화하고 서로 비교하며 차이에 따르는 기능과 역할을 개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고 있다. 이제 天-上帝의 궁극존재를 인격적 존재로도 볼 수 있고 형이상학적 관념으로도 볼 수 있는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한다. 한 해석이 옳으면 다른 해석은 틀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음을 문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五倫의 규범에 대해서도 하늘로부터 부여된 불변의 天倫으로 제시한다 하여, 五倫의 개별 규범에 대한 해석에서도 어떤 권위에 의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비교적 자유롭게 그 본질적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해석함으로써 타종교의 규범이나 사회체제의 가치질서와 소통되기를 추구한다.

오늘의 유교는 사회문화적 태도에서도 민

주주의나 자본주의의 원칙을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재해석되고 있으며, 한 걸음 나아가 유교적 독특성을 지닌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유교는 전통적 실현방법에 따른 폐단의 문제점과 새로운 시대환경 속에서 적응 가능성을 열어주는 포용성의 양면이 중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생활의례 속에서도 전통적 관습에 집착하여 형식주의에 빠지는 부정적 측면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지만, 새로운 시대에 의례의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형식주의적 절차를 벗어나 공동체의 조화로운 일체감을 실현시킬 수 있게 기능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가족의식에 대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유교가 제시하여야 할 새로운 가족의식은 가족주의로 폐쇄되고 핵가족주의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핵가족과 친족, 이웃, 사회, 자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공동체와 세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통합하여 큰 질서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야 한다. 그것은 큰 단위의 공동체 속에 작은 단위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위가 평등하게 병렬되면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다. 유교전통의 점진적 단계적 확장의 방법은 교육과정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는 동시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유교적 사회규범은 개인의 독자성과 자기중심으로서의 권한을 확보해 주면서 개인의 이기심에 갇히는 私的 질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기중심이 타자와 사회와 자연 속으로 열려있음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더 넓게 포괄시켜가는 公的 질서를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이기적인 욕심의 私에 사로잡히기를 거부하고 보편적 가치의 公을 구현하고자 한 이상은 공자를 통해 사사로운 욕심의 자기를 이겨내고 보편적 예법의 원리를 회복할 것 (克己復禮)으로 제시되었으며 道學의 전통에서도 천리를 간직하고 인욕을 억제한다 (存天理 遏 人欲)는 명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오랜 격언을 우리 시대 속에 새로운 빛을 되살려냄으로써 유교는 조화를 이루고 포괄성을 구현하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韓國現代의 儒敎文化, 서울대 출판부)에서

復 性 賦

河西 金麟厚

온갖 것들이 태어날 때엔
 天命의 正性을 받았네
 健順과 五常을 갖추었으니
 음양과 五行의 어울림이라
 진실로 純善이요 섞임 없으니
 혼연한 至理의 沖融이로세
 그렇지만 通塞과 正偏이 있음은
 기질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네
 秀氣받아 사람 가장 신령하지만
 그래도 智와 愚의 차가 있구료
 累了 벗고 가림이 열린다면
 聖人되는 그 길을 오르고 말고
 堯舜같이 性대로는 못한다지만
 湯武의 돌아옴엔 남음이 있네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여
 날로 꿰임 없으면 復初가 되네
 마음을 굳게 잡고 誠을 지니면
 柔가 강해지고 愚가 밝아지느니
 어찌 분수 밖의 일에 애를 쓸손가
 이는 것을 미루어 행하는 걸세
 당연히 帝則만을 順히 한다면
 물마다 제 그칠 데 그치느니라
 이 道를 가지고서 教를 만들어
 멀지 않고 가까운 데서 시작하네
 人物에 극진하고 天地에 참여하니
 이 어찌 자기만을 이룬다 하리
 位育의 지극한 功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곧 聖人의 能한 일 아닌가
 孔夫子는 비록 말씀 안하셨지만
 실상 은미한 뜻이 갖추어 있네

子思에게 미치어 발휘되기는
 오래 가면 참을 잃을까 두려워설세
 책에다 친히 써서 전수함이어
 부탁할 사람 있어 하 기뻔도다
 性善을 주장하여 開導를 하니
 民生에게 더욱더 공이 있구료
 唐에 와서 韓愈가 본 것이 있어
 籍湜에게 여러번 指教하였네
 이고가 저술한 세 편을 보면
 더러는 체득한 바 있는 듯 하이
 어허 나는 문건 적어 못 미쳐 가니
 醇疵를 평론하기 어렵잖은가
 그렇지만 三品이란 그릇된 발론
 傳述이 精치 못함 알겠군 그래
 홀로 깊이 宇宙를 생각함이어
 明誠에 종사하기 소원이라오
 거듭 말하노니
 물은 지극히 맑은데 진흙먼지 구정커리고
 性은 지극히 선한데 物欲이 막아버리네
 구정커린 게 없어지면 맑은 것이 나오고
 막혔던 게 뚫려지면 선한 것이 회복되나니
 부지런히 부지런히 힘을 다 써서
 初服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본가

惟萬彙之稟生兮	受天命之正性
具健順與五常兮	寔二五之所併
諒純善而無雜兮	渾至理之沖融
然通塞而正偏兮	由氣質之不同
人得秀而最靈兮	尙智愚之有差
苟脫累而開蔽兮	斯聖途之可階

雖非堯舜之性之兮	湯武反而有餘	至唐韓之有見兮	屢指教於籍湜
在學問而思辨兮	日乾乾而復初	韜所著之三篇兮	或一端之有得
要操心而存誠兮	可柔強而愚明	嗟寡聞之靡及兮	奈醇疵之難評
豈強事於分外兮	推所知而乃行	然三品之已誤兮	占所述之不精
順當然之帝則兮	物各止其所止	獨長思於宇宙兮	願從事於明誠
將是道而設教兮	自不遠而伊邇		
盡人物而參天地兮	亦豈但乎成己	重曰	
致位育之極功兮	乃聖人之能事	水之至清	塵泥汨兮
縱夫子之不言兮	實微意之俱備	性之至善	物欲窒兮
及子思之發揮兮	恐彌久而失真	汨者既去	清者出兮
筆之書而傳授兮	喜所託之有人	窒者既通	善者復兮
道成善以開導兮	益有功於生民	盍亦孜孜	反初服兮

정조대왕 어제 사제문 (正祖大王御製賜祭文)

正宗 丙辰 十一月 初六日 遣右副承知 李勉兢致祭

정종 병진 십일월 초육일 우부승지 이면공을 보내어 치제하다

나는 斯文을 위해	大一統을 제시했네
글은 기필 朱子 존승	소원은 孔子 배워
천지에 두 분이라	先正은 詩 지었소
진실로 文正公은	百世의 스승일레
거룩하신 孝陵이여	光明한 임금 신하
殷의 傳說 漢의 諸葛	公은 실로 그 짝이라
講筵에선 蓮燭 주고	畫竹은 품에 있네
公에 대한 온 기대는	天德이요 王道러니
空山이라 칠월 칠석	한가락 楚騷 노래
그 님 생각는지	눈물 받아 피로 잊네
검은 인띠 선뜻 풀고	기럭 날아 아득 아득
宇宙의 높은 바람	大倫의 해와 별이라
어진 史官 特書하고	君子들은 칭송하네
세운 바를 살펴보면	지닌 것을 미뤄 알지

圃隱 처음 제창하고
 중간에 道가 막혀
 南州에서 공이 나니
 寒暄의 사숙이요
 絶學을 일찍 떨쳐
 늦게 더욱 精熟하여
 항시 말은 禮라며는
 大學이란 한 권 책은
 중천의 霽月이요
 萬 이치 한 근원이
 顔回 족박 曾點 비파
 그 이름 한테 모아
 못 선비들 꿈 해매어
 道를 알길 器로 여겨
 손벽 치는 한 마디 말
 四端 七情 글 이루니
 구름 물은 劫이 차고
 韋編의 옛 초고는
 華陽은 碣銘 짓고
 이 어찌 崇報라 하리
 수 백년을 동떨어져
 하늘 운수 돌고돌아
 만만세라 공부자는
 四聖이라 十哲이라
 公 같은 이 及門하면
 儒林의 정평이요
 곧장 좋은 때를 가려
 文廟에 배향하니
 삼백의 州郡이라
 모두 따라 제사하여
 이에 誥命을 내려
 文藻의 고택에도
 예를 떨친 殷禮에다
 스승 존대 學 드러냄은

靜菴 크게 드날렸네
 실낱같이 아슬아슬
 사람 중의 豪傑이라
 退溪의 德友로세
 높은 곳을 홀로 보고
 表裏 微顯 한결갈네
 종사함은 敬이었네
 평생의 本領이라
 좌상의 春風일세
 눈에 닿으면 노글노글
 濂溪 太極 橫渠 西銘
 주자에게 절충했네
 正義가 어지러워라
 未發의 中을 찾네
 거북인양 좇불인양
 대개 公은 先覺일레
 골짜 난초 향기 다해
 유실된 것 아깝구려
 筆巖에 祠宇 있네
 德 아는 자 드물었소
 내 마음과 부합되네
 오늘날을 기다린 듯
 온 천하가 祭 올리며
 차례 차례 陞配했네
 升堂의 열에 들다마다
 昭代의 闕典이라
 陽復하는 동짓달에
 五賢의 열이로세
 바다 두른 동쪽에는
 태학관과 다름없이
 節惠를 새로 하고
 대대로 제사토록
 夙昔의 大義로세
 孝陵의 본 뜻이라

宮牆 더욱 높다랗고
내 계시한 大一統은

俎豆 심히 조출한데
억 만년에 말 있으리라

予爲斯文 揭大一統
書必尊朱 願則學孔
天地二人 先正有詩
允已文正 百世可師
於戲孝陵 灑落君臣
殷傳漢葛 公實其人
蓮燭臨筵 畫竹在抱
世方期公 天德王道
空山七月 楚騷一閱
云誰之思 淚盡繼血
飄然墨綬 鴻去冥冥
高風宇宙 大倫日星
良史特書 君子尙論
觀乎所立 可推其存
圃老肇倡 靜翁丕闡
斯道中否 不墜如線
公起南州 傑然人豪
道淑寒暄 德隣退陶
早奮絕學 高處獨見
晚益精熟 表裏微顯
雅言則禮 從事於敬
一部曾傳 平生本領
天心霽月 座上春風
萬理一原 觸目圓融
顏瓢點瑟 周圖張銘
乃集厥成 會統考亭
群儒說夢 正義禁日

認道爲器 求中未發
一言抵掌 炳若龜燭
文成四七 蓋公先覺
雲水劫寒 谷蘭香歇
韋編舊稿 惜矣今佚
華陽有碣 筆巖有祠
曷云崇報 知德者稀
曠數百載 獨契予心
天運往復 若待于今
萬世宣尼 普天芬苾
四聖十哲 陞配成秩
如公及門 優入升堂
儒林定評 昭代闕章
乃諏吉辰 陽復之月
躋之聖廡 五賢之列
三百州郡 環海以東
從與享之 一視泮宮
迺贈渙誥 迺新節惠
文藻故宅 亦祀以世
振古殷禮 夙昔大義
隆師闡學 孝陵志事
宮牆彌崇 俎豆孔滌
予揭大統 有辭千億

山仰會 創立의 動機와 活成化 方案

朴來鎬(山仰會 前總務)

筆者는 15-6세 때 休齋 孔炳柱선생의 門下에서 詩經을 읽었는데 詩經 300편의 글귀 모두가 아름다웠지만 나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느낌을 주는 글귀가 있었으니 곧 高山仰止 景行行止라는 글귀였다. 즉 높은 산은 사람들의 우러러 보는 것이고 큰 길은 사람들의 가는 곳인데, 이는 億兆蒼生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뜻으로 과연 얼마나 깊은 學問과 높은 德行을 닦아야만 高山景行의 존경을 받을 것인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筆者는 29세 때에 鰲山吟社詩會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汕巖 邊時淵先生 文苑 刊所에서 留宿하며 文苑 마무리 작업을 도왔다. 당시 筆巖書院 掌議인 汕巖先生의 命으로 春秋享祀時 時到記는 나의 義務擔當이 되었다.

河西先正 誕降 475년 乙卯(서기 1985)년에 本院 院誌를 편집하는데 山仰契 發起文을 비롯 契員座目까지 整理하면서 앞서 밝힌 高山仰止 景行行止의 主人公이 河西先生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 많은 儒林을 入契시키자는 儒論에 따라 不德한 필자가 감히 그 책임을 띠고 玉果 詠歸書院을 시작으로 道內 淵源世家를 차례차례 訪問한 결과 그 成果가 인증되어 本契 마지막 任員錄에서 筆者를 영광스런 幹事로 기록하게 되었다.

院誌가 刊行된 지 29년 뒤에 河西先正의 후손이며 당시 儒林 指導者인 碧農先生의 長胤인 欽齋 炳勳兄께서 本書院 儒林의 모임인 山仰契를 새롭게 활성화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本契의 마지막 幹事였으며 現 本院 執綱인 그 대에게는 活成化에 앞장서야 하는 責任이 있다는 欽齋兄의 강직하고 정의로운 말씀에 회피할 길이 없어 활성화를 하자는 데 마음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本契員들의 住所 및 生死를 확인 또는 구분하는 작업을 착수하였으며 本院

別有司인 素巖 容淑兄을 비롯 관계자 諸賢들의 命에 따라 再 創立 趣旨文을 작성하였고 吳 意見을 모아 會長을 비롯하여 幹事에 이르기까지 第一回 任員을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2001년 8월 22일 契를 會로 고쳐 本 會는 창립되었고 필자는 總務職을 맡아 會長 安晉吾博士님을 모시고 일년간 이끌어 오다가 壬午 秋享을 모시고 나서 자신의 건강상 總務職을 辭任하였다.

제1회 任員 任期末了를 앞에 둔 본 회는 金長洙 現總務님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에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筆者의 基本構想을 적어본다면 會員을 中心으로 內實있는 講學에 신경을 쏟는 한편 湖西 또는 嶺南에 본 회 支部를 설립하여 그곳 儒林들로 하여금 學術發表를 갖도록 하고 發展이 계속된다면 河西學이 國境을 넘어 世界化에 초점을 두고자 한 것이 필자의 솔직한 소망이었다.

孔夫子께서 行有餘力 則以學問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方 可以行이라고 하셨다. 先正께서 朱夫子 白鹿洞學規 말미에 붙인 詩에서 學問且思辨 篤行在先知라고 쓰신 것은 孔夫子的 行有餘力 則以學問에 근원을 두신 것이며 文廟從享疏 批答에 正祖께서 先行後知라고 하신 것은 先正의 篤行在先知에 근원을 두신 듯하다.

필자가 위에서 言及한 世界는 孔夫子께서 말씀하신 蠻貊까지도 포함한 것이니 先正의 先行後知 道學은 오랑캐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기에 여기에서 河西學을 世界化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泰山을 옆구리에 끼고 北海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한 말은 참으로 불가능한 것이지만 老人을 위해 나뭇가지 하나 꺾어드리는 일을 못한다고 한 말은 그가 아니한 것이 못한 것이 아니다 라는 孟夫子的 말씀처럼 河西學을 世界化시키는 일은 努力如何에 달려있는 것으로 결코 泰山을 끼고 北海를 뛰어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 과거 잘못된 시기와 분열이라는 멍애를 벗어나려고 河西先正을 泰山처럼 우러르며 함께 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會員이 되었으면 한다.

… 筆巖書院 山仰會 沿革 및 活動事項 …

선정 하서 김인후 선생의 향사 서원인 필암서원에서 광복이후 혼란기에 춘추향사가 어렵게 되어 1953년(계사)8월에 당시 원임 朴鳳求, 金英中, 邊時淵, 유학자 安圭容, 奇宇采, 제씨 등 26인이 山仰契를 발기하여 전국의 유림이 高山仰止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모임을 결성하여 존현위도의 정신으로 춘추향사를 봉행하여 왔음.

당시 발기인: 安圭容, 奇宇采, 金圭稷, 奇儀鎭, 金天奎, 金仁中, 邊東曄, 梁會喆, 柳春錫
李宅奎, 金度中, 李鍾坤, 金榮洙, 朴鳳求, 金俊植, 沈權淳, 權純命, 盧軫永
柳永善, 鄭泰冕, 金漢中, 金從洙, 金黃中, 金堯元, 朴廈柱, 邊時淵 26명.

근래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발전시켜 선양하여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여 산양계 재발기 준비위원회(위원장 安晉吾)를 구성하여 高亨坤 필암서원원장을 비롯한 서원집강, 崔昌圭 성균관장을 비롯한 전국의 유림 230여명이 2001. 8. 22일 필암서원에서 모임을 갖고 山仰會로 개칭하여 재발기 하였던 바 그후 활동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2001. 8. 22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생애와 사상” 주제아래 安晉吾 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0.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우암선생이 본 하서선생” 주제 아래 趙鍾業 충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2. 22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 주제 아래 金基鉉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 3.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인종승하와 하서의 절의” 주제 아래 金鎭雄씨(서울대 공대졸, 부산거주, 문정공파 부도유사)의 강회.
- 2002. 8.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집강)가 번역 봉독.
- 2002. 9. 26일 秋享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천명사상”의 주제 아래 尹絲享 고려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2. 12. 1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제1호)를 발행 配布.
- 2002. 12.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선비정신” 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逸교수의 강회.
- 2003. 3.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竣圭 전남대 명예교수(담양 가사문학관장)의 강회.
- 2003. 5.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晉吾 산양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을 하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데 기여하였음.

1. 생애

하서 김인후는 1510년(중종 5) 전라도 장성현 대맥동리(大麥洞里 : 지금의 장성군황룡면 맥호리)에서 태어나 1560년(명종 15)에 별세한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유학자이다. 본관은 울산으로 자를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 또는 담재(湛齋)라 하였다.

김인후 집안이 장성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그의 5대조 흥려군 온(穩)이 1416년(태종 16) 세자 책봉 문제로 사약이 내려지자 정부인 민씨가 3형제를 거느리고 장성맥동에 내려와 정착하게 되면서부터이다.

하서가 성장기를 보낸 조선 중종 초년은 16세기 사림세력이 점차 자리를 굳히기 시작한 때였다. 즉, 연산군 때 무오갑자 등 두 차례에 걸친 사화로 크게 위축되었던 문풍(文風)이 중종반정 이후 새로 부활되는 가운데,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소위 기묘사림이 점차 중앙정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시기였다.

이와 같은 중종 연간에 김인후는 8세 때 이미 전라감사이던 조원기(조광조의 숙부)로부터 장성의 신동이라 들을 정도로 뛰어난 자품을 타고난 사람이었는데, 10세 때에는 전라감사로 부임한 김안국에게 나아가 『소학』을 배웠다. 당시 성리학풍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시된 교재가 『대학』과 『소학』이었고, 특히 『소학』은 초학자가 학문의 길에 들어가는 입문서로서 그 중요성이 대

단히 컸다. 그래서 기묘사림은 『소학』의 간행과 보급에 주력하고 더 나아가 그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하서도 역시 김안국의 영향을 받아 『소학』을 중시하였다. 비록 어린 시절이었지만, 김안국에게서 『소학』을 배운 경험은 그의 감수성을 자극하여 뒷날까지 학문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김안국에게서 배운 기간은 그리 길지 못하였다.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사 내지 유배되었고, 김안국도 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경기도 이천으로 귀향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하서는 18세 때까지 독학으로 사서오경을 공부하였으나 학문적 성취는 크게 이루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무렵 기묘사화로 동북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최산두(崔山斗)와 광주로 귀향한 박상(朴祥)에게 나아가 그 문하에 들면서 학문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었다.

특히 박상은 기묘사화 후 김세필, 김안국 등과 서로 강학하였고 또 『태극도설』 등에 정통한 면모를 보이는 등 성리학에도 상당한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하서의 학문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당대의 이름높은 학자들에게 수학한 하서는 22세 때인 1531년 성균관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성균관에 입학하여 퇴계 이황 등과 교유하였다. 하서와 퇴계와의 친교는 매우 두터워 후일 퇴계가

“함께 교유한 사람은 오직 하서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한데서도 엿볼 수 있다.

31세 때인 154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승문원부정자에 등용되었으며, 이듬해에 사가독서의 은전을 입게 되어 모든 선망의 대상이던 호당(湖堂)에 들어갔다. 독서당이라고도 불린 이 전문독서연구기관은 젊은 문신 중에서 덕과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호당에 들어간 다음해에 홍문관 저작이 되었으며, 1543년에는 홍문관박사 겸 세자시강원설서(弘文館博士兼世子侍講院說書)가 되어 세자 보도(補導)의 직분을 맡았다.

이때 하서는 후에 인종이 되는 세자와 깊은 사제의 연을 맺게 되는데, 세자는 그의 학문과 도덕에 깊이 감복하여 하서의 집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주자대전』한 질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이『주자대전』은 장차 하서의 성리학 연구에 큰 몫을 하게 되거니와 후에 인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한 후 그는 일체의 벼슬을 사양하고 또 임종시에도 각별한 인연을 중히 여겨 옥과현감 이후의 관직을 쓰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

하서가 인종에 대하여 이처럼 절의를 지킨 것은 후세에까지 그의 출세관이 동방에 으뜸이라고 길이 칭송되었다.

1543년 6월에 홍문관 부수찬, 경연검토관으로 승진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부모의 봉양을 이유로 관직을 사퇴하고 향리로 내려갈 것을 청하여 12월에 마침내 옥과현감을 제수받아 고향으로 돌아왔다.

1544년 11월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하자 제술관으로 서울에 올라갔으나, 이듬해 1년도 못되어 인종이 갑자기 승하하고 곧이어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하서는 병을 이유로 옥과현감마저 사퇴하고 고향인 장성으로 물러났다.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온 하서는 순창 점암촌에 초당을 세우고 오직 주자학 연구와 제자양성에 몰두하였다.

2. 학문연원과 사상

향리에 기거한 후 하서의 활동은 성리학의 깊은 탐구와 철학적 논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8세 때에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과 『서명사 천도(西銘事天圖)』를 저술하였으며, 한편으로 노수신, 기대승, 이항, 이황등과 철학적 논변을 전개하였다. 이 때에 형성된 성리학적 이론은 그가 조선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일제 이항과 고봉 기대승 및 하서 사이에 태극도설을 놓고 논변이 일어났다. 이 때 고봉은 이 문제를 하서에게 문의하였는데, 하서는 이항의 설에 반대 하였던 것 같다.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으나 하서의 태극설은 고봉이나 퇴계와 유사했음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하서는 심성론에 해당하는 천명도의 논변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하서가 이 논변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과거에는 하서의 위치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암 송시열의 『신도비명』에는 고봉이 퇴계와 논변하기 전 하서에게 질의하여 그 답을 듣고 그의 설을 취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근자에 하서의 천명도가 발견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발문에 의하면 하서의 천명도는 퇴계가 증정(證正)한 천명신도보다 4년이 앞섰는데, 여기서 하서는 추만이 性을 理로 파악한데 반하여 ‘中’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하서의 사단칠정에 대한 자료가 없어 잘 알 수 없지만, 고봉이 하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송시열의 주장이나 기타 자료들을 통해 보건대 하서의 사칠론은 고봉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서는 조선 중기 성리학의 중심과제였던 사단칠정논쟁, 태극논변, 천명도 논쟁 등에 참여하여 조선 성리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다시 말하면 하서는 15세기 의리와 대의명분으로 일컬어지는 의리실천(義理實踐) 차원의 성리학에서 16세기 심성 위주의 이론을 탐구하는 성리학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퇴계 및 고봉과 더불어 이후 조선 성리학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후세의 학자들은 하서를 한결같이 백세의 사표로 추앙하였으며, 특히 정조는 그를 존경하여 문묘에 배향하기도 하였다. 하서의 학문은 성리의 정확에만 그치지 않고 천문, 지리, 의약, 산수, 율력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하서는 문장과 시에서도 당대의 걸출한 인물이었다. 이처럼 학문과 문장으로 뛰어난 업적을 쌓아 가던 하서 김인후는 1560년 정월 5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임종시에도 옥과현감이후의 관직

을 쓰지 말라 하였다. 이는 인종에 대한 절의의 표시이며, 기묘사화 이후 도학이 위축된 당시에 대의와 의리 실천을 구현하고자 한 사림(士林)의 정신을 몸으로 보여준 시대의 사표였다.

그리하여 하서는 1796년(정조20)에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장성의 필암서원과 옥과의 영귀서원 그리고 남원의 노봉서원에 제향되었다. 그의 사후,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의정 겸 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영사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정(文正)이라 하였다. 저술로는 『하서집』 「주역관상편」 「백련초해」 「서명사천도」 등이 있다.

이상으로 외선조이신 하서선생의 삶을 되돌아 보았다.

나는 成均館에 출입하면서 항상 내 몸에는 훌륭한 先賢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自負心を 갖고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기 위해 옷깃을 여미고 생활하는 행운에 감사한다.

2008년 6월 일
성균관유도회 서울특별시본부 회장

河西 金麟厚 宗家 기증 〈契會圖〉 특별공개

국립광주박물관은 4월 4일 11시에 우리관 기획전시실에서 河西 宗家로부터 기증받은 31점의 문화재 중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를 특별 공개하였다.

기증 당시 河西 중가에서는 "여러 차례의 문중회의를 통해 유물이 더 훼손되기 전에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던 중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이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8개월 동안 이 그림의 보존처리를 완료하였다. 이 유물이 완전한 모습으로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契會圖는 1531년 辛卯式年 生員進士試에 합격한 관리들의 모임을 기념한 그림으로 모임의 시기는 1542년으로 추정되었다. 金麟厚가 화면에 쓴 시는 이들이 司馬試 합격 10년을 전후하여 大科에 급제한 뒤 初職에 있을 무렵 同榜 모임을 가졌음을 말해준다. '같은 사마시에 합격하고 같은 시기에 末職에 종사하던 同榜者들의 契會圖'라는 제목에서 이런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날 참석자는 7인으로 鄭惟吉, 閔箕, 南應雲, 李澤, 李樞, 金麟厚, 尹玉이다. 이들은 1535-1540년 사이에 모두 別試文科에 합격한 이후 六曹의 佐郎, 弘文館 正字, 藝文館 檢閱 등의 관직에 있었다. 이 契會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대과를 통과하여 요직에 나가 기 쉬운 관직을 받았던 30대의 촉망되는 관

료들의 榜會였던 것이다.

또한 이 契會圖는 이른바 郭熙派 畫風에서 기원하여 한국적으로 발전한 16세기 전반기 회화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구도와 景物의 구성에서 傳 安堅 筆 〈四時八景圖〉의 〈初冬과〉 비교되는 1540년의 〈薇院契會圖〉와 1541년의 〈夏官契會圖〉 등과 함께 '偏頗構圖系'에 속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김인후가 畫面 左上部에 草書體로 쓴 七言律詩는 다음과 같다.

衿珮當年一榜歡 科名先後十年間
朝端共路非新契 都下分司各末班
隨處未開眞面目 偷閑須向好江山
相從乍脫塵衝束 莫使樽前笑語蘭厚之
진사에 동방한 당년의 선비들이
십년을 전후하여 대과에 올랐구려
벼슬길 함께 가니 새로 맺은 벗 아니오
맡은 구실 다르지만 모두 다 말단일래
만나는 자리마다 참된 면목 못 얻어서
한가한 틈을 타서 좋은 강산 찾아가네
진세의 속박을 잠시나마 벗어나니
술 마시며 웃음 웃고 이야기나 실컷 하세.

▶ 癸未年 春香祭 奉行

筆巖書院에서는 3월 15일 (음2월 13일) 河西 金先生을 기리는 春香祭가 柳漢相 등 임원과 安晉吾 山仰會長, 李昆煥 大邱鄕校유도회장, 金錫基 全北鄕校理事長 등 전국 儒林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奉行되었는데, 初獻官에는 金成勳 前農林部長官이, 亞獻官에는 金錫基 전북향교 이사장이, 終獻官에는 金正泰 儒林이 맡아서 경건하게 거행하였다.

祭香이 끝난 후 朴俊圭 全南大 명예교수가 〈河西先生 文學의 道學的 理解〉라는 主題로 강연하였다.

한편 서울에 소재한 국립민속박물관의 李文鉉씨 등 3명이 書院文化 民俗資料로 활용하기 위하여 前夜에 繫牲碑 앞에서 充 禮를 再現하는 장면과 任員과 祭官들이 講論하는 장면, 詩를 짓는 장면, 春香祭를 봉행하는 장면등을 촬영하였다.

▶ 歲謁 焚香禮 奉行

癸未年 새해를 맞이하여 2월 5일(음1월 5일) 10시 30분에 筆巖書院 祐東祠에서 柳漢相 道長議를 비롯하여 李炳珪, 李相鏞, 朴來鎬, 羅天柱 등 임원과 儒林 및 本孫 都有事 金英, 別有事 金容淑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해 맞이 焚香禮를 경건하게 奉行하였다. 이날 長城郡 議會 前議長인 崔南鎬 儒林이 대표로 분향하였다.

▶ 百花亭 上樑文 현판

지난 4월 16일 筆巖書院 祐東祠에서 奉審을 마치고 麥洞 河西先生의 生家로 가서 百花亭 上樑文을 현판하였다. 百花亭은 옛날 河西先生의 사랑채로 여러 꽃들을 기르고 완상하며 道學을 啓發하신 곳인데, 後孫 秀堂 季洙씨의 特誠으로 1961년 8월에 重建하였다. 당시 선생의 16대손인 金載石公이 撰한 上樑문을 그 아들 鍾變씨가 判각하여 亭內에 揭示하기에 이른 것이다.

百花亭은 지금도 봄이면 백화가 爭發하며 境內에 仁宗께서 下賜하신 배씨를 심어서 자란 御賜梨가 있고, 들판 건너에 仁宗이 陞下하신 날에 先生이 痛哭했다는 卵山이 보이며 그 너머 멀리 湧進山이 雙筆峯을 이루고 있어 풍수 지리학의 관심을 끌기도 하는 곳이다.

▶ 筆巖書院 奉審者 來到

河西先生의 學德을 기리기 위한 奉審者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비하여 장성군에서 제작한 안내 유인물과 서원에서 제작한 하서선생의 생애와 학문이라는 유인물을 배부하고 있어 방문객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 가족단위 방문객이 매일 200여명이 來到하여 奉심하고 現場 學習을 하면서 선생의 학덕을 기리며
- 초중고생 연인원 2500여명이 단체로 방문하여 선생의 道學과 節義가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드높이고 있다.
- 2003년 4월 27일 전주에서 원로유림 20여명이 내방하여 祐東祠에서 奉심하고 書院沿革을 설명하였으며
- 2003년 5월 17일 조선대학교 古典研究院 소속 회원(會長 許利鍾) 30여명이 奉심하고 淸節堂에서 하서 선생의 생애와 시문학적 연구라는 주제로 강론했다.
- 2003년 5월 23일 서울소재 고인돌 협회 (회장 柳寅鶴 세계고인돌협회 총재)회원 50여명이 奉심하고 淸節堂에서 하서생애와 華夷思想에 대하여 講論하였다.
- 2003년 5월30일 대구소재 退溪學會 회원 30여명이 奉심하고 서원연역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자료 : 金容淑 別有司 제공)

하서 김인후선생 추모 백일장 성대히 마쳐...

조선시대 도학의 대가이신 河西 金麟厚 선생을 추모하는 제1회 전국 漢詩 백일장이 지난 5월28일 오전 11시 전남 장성군 황룡면 筆巖書院(院長 高亨坤)에서 열렸다.

대회 개최에 앞서 하서 선생을 모신 사당(祐東祠)에서 서원 집강과 유림들의 告由祭가 있었는데 성균관 고문이며 서원 집강이신 柳漢相 선생께서는 손수 지은 고유문(告由文)을 낭독하면서 이 대회를 통하여 해이된 이 시대의 교육을 바로잡고 사도(斯道)가 맥을 이어 갈 수 있기를 경건히 기원하였다.

대회 개최시각이 가까워지자 서울 부산 대구 전주 광주 등지에서 老少의 참가자들은 물론 취재진이 모여 서원 경내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명예 대회장인 金興植 장성군수는 대회를 통해 "조선시대 성리학을 꽃피운 하서 선생의 학문적 위업을 기리고 전통문화인 한시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백일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원 내 청절당에서 열린 이날 백일장에서는 전국의 한시 동호인 500여명이 참가해 대회 詩題인 '追慕 河西 金先生'을 놓고 기량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당일 즉석에서 추첨으로 뽑은 운자인 東, 同, 風, 中, 窮 등을 넣어 七言律詩로 한시를 지었다.

백일장 장원은 대구 출신 이용옥씨가 차지해 상금 100만원과 상장을 받았다. 차상에는 부산 출신 서정민씨 등 2명이, 차하에는

대구 출신 신진배씨 등 3명이 뿔혀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백일장에서는 柳漢相 성균관 고문, 邊時淵 한국고문연구회장 朴鍾達 광주향교 재단이사장 安晉棼 필암서원 산양회장 등 유학자들이 대회 부회장을 맡았다.

또 李雨燮씨, 邊璫燮 서울유도회장 李夏永 전북유도회장, 李昆煥 대구 유도회장 등 원로 한학자들이 자문으로 위촉돼 이번 대회 준비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이날 시관(試官)이 작품심사를 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안진오(安晉棼) 필암서원 산양회장께서 "하서 김인후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아래 특강이 있었는데 미리 배포한 유인물을 통하여 하서 선생의 도학과 절의와 문장은 인간존중의 하서 사상이 구체적으로 발현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국가사적 제242호인 필암서원은 호남 유림이 하서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조선 선조때 창건한 사우로 대원군의 서원철폐 때도 존치의 대상으로 피해를 보지 않은 유서 깊은 곳이다.

이날 백일장대회 진행을 맡은 김진웅(金鎭雄) 위원장은 앞으로도 필암서원에서 매년 한시백일장대회를 열어 河西思想을 구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 시대에 실종된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라고 말했다.

(정리 : 총무 김장수)

筆巖書院 第一回 漢詩 白日場 開設 告由文

維 歲次癸未四月甲戌朔二十八日 辛丑 後學 柳漢相 敢昭告于
文正公河西金先生 伏以倚歟先生 河嶽鍾英 學博道廣 凜然高風
山斗之望 日月之光 玆值清和 詩戰白日 京鄉咸集 追慕益切
世教解弛 儒脈是述 用伸虔告 謹將疊潔

- 백일장 입선작 -

壯元

李鏞玉

偉哉湛老闡吾東
逕至詞林景慕同
華麗文章離俗體
隆崇道德振儒風
筆巖俎豆千秋裡
清節絃歌百世中
洙泗淵源能繼述
芳名懿績頌無窮

次上

徐廷玟

筆巖書院冠吾東
德行溫良古聖同
灑落文章如霽月
精淳道德若光風
能承孔孟淵源裏
克繼程朱脈絡中
節義堂堂嚴子伴
後生景慕永無窮

次上

李昌燮

先生偉業冠吾東
自古何人可與同
踵接考亭傳道學
韻賁洙泗振儒風
遂行節義千秋裏
啓導文章萬歲中
百代宗師追慕地
仰思遺訓感無窮

筆巖書院 山仰會員 住所錄

◎ 서울, 경기, 대구, 부산

〈姓名, 本貫, 雅號, 住所, 電話番號〉

- 李昆煥, 仁川, 然哉, 대구시 남구 이천동 293-9, T. 053-471-3717
- 金成勳, 光山, 月浦 서울 강남구 청담1동 67 진흥빌라 7-102 T. 02-549-7878
- 金泳仲, 蔚山, 又湖,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92-26, T. 02-333-2868
- 高洪錫, 長興, 琴軒,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경향아파트 101동 103호 T. 031-511-7822, 018-224-7822
- 邊瑔燮, 黃州, 元谷,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9-9, T. 02-3442-0220, 016-342-2288
- 田光弘, 潭陽,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외사리, T. 031-633-2723, 011-9654-2723
- 金鎭雄, 蔚山, 晚巖,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현대아파트 110-2003, T. 051-265-4237, T. 011-565-4237
- 宋東憲, 恩津, 石泉, 대전시 동구 용운동 258, T. 042-284-0161
- 金相燁, 蔚山,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 4동 94-28 현대맨션 1동 201호, T. 02-3481-8436
- 趙鍾業, 漢陽, 鶴山,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새미래아파트 811동 401호, T. 042-825-9981
- 鄭炫柁, 草溪, 素浪, 경북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6번지 T. 054-481-0409, 011-555-7991
- 金泰守, 蔚山, 松鹿,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동 270-43 논현빌라 202호, T. 02-362-9650, 02-545-4167, 011-673-4167
- 高亨坤, 서울시 필암서원 원장

- 金熙明, 光山, 誠菴, 부산시 해운대구 우일동 637-4, T. 017-560-4586
- 金在億, 蔚山, 三洋, 서울 종로구 연지동 263, T. 02-740-7012, 011-302-7012

◎ 전북

- 崔宗春, 全州, 春塘, 임실군 운암면 상운리 529 T. 063-643-9500, 011-9626-9501
- 金炳寬, 蔚山, 安松, 순창군 팔덕면 장안리 T. 063-652-5180
- 金炳崙, 蔚山,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317, T. 063-653-4411, 011-678-2051
- 崔四鉉, 全州, 月坡, 순창군 구림면 월정리 691, T. 063-652-9153, 011-9991-9153
- 鄭雲炎, 迎日, 斗下, 전주시 덕진구 진북 2동 1060-8 현대아파트 1001호 T. 063-272-3900, 018-285-3900
- 金鳳洙, 蔚山,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3-46, T. 063-274-3821
- 劉一鍾, 江陵, 河南, 정주시 상동 283-11 T. 063-535-3497, 011-9923-3497
- 金炳閔, 蔚山, 愚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현대 아파트 102-503, T. 063-223-9729
- 丁熒均, 義城, 春臺,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 376-8 동원당 서예학원, T. 063-246-9146, 016-622-9146
- 尹柱男, 坡平, 克齋, 김제시 백학동 141-1, T. 063-546-0850, 016-9899-0851

- 金鍾鶴, 光山, 岳岩,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T. 063-546-9304
- 申文秀, 高靈, 晚松, 月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53-2 월정서예학원 T.063-282-4427, 016-627-4427
- 金鍾大, 慶州, 春山,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79-4, 전주 학의 서당 T. 063-286-5698
- 金鍾懷, 慶州, 淸谷, 김제시 성덕면 대석리 대석 T. 063-444-3773, 011-9437-8115
- 李夏永, 全義, 紹强,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16-1, T. 063-282-7608
- 安在格, 順興, 行山,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가 421-5 T. 063-285-3389, 017-606-3389
- 林東翼, 羅州, 雲湖,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705-6 광진궁전 아파트 7-1201 T. 063-224-6697, 019-489-6697
- 金鍾燮, 蔚山, 中軒,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18 현대아파트 105-206 T. 063- 221-4592
- 高南奎, 長興, 秀山, 고창군 신태면 가평리 T. 063-562-4277
- 金炳櫚, 蔚山, 仁堂, 익산시 중앙동 3가 30 김외과병원, T. 063-855-2321
- 李世煥, 固城, 葛川,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가 393-1 갈천서원
- 金炳權, 蔚山, 光彬,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1가 44-1, T. 041-857-6221~5 011-655-0018, 063-284-0018
- 朴金奎, 익산시 신동 제일 아파트 101동 601호, T. 063-851-5056
- 金錫基, 淸州, 淸史, 전주시 전동 2가 140-12 전라북도 향교재단 이사장 T. 063-564-2302
- 安珍模, 順興, 竹堂, 전북 남원시 이백면 내동 247, T. 063-635-3154
- 楊萬鼎, 南原, 玄谷,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서호아파트 101동 205호 T. 063-288-3646, 063-274-7995
- 金載元, 蔚山,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삼태, T. 063-267-6645

- 權熙文,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 安泰錫,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83-29
- 吳鍾逸, 同福, 臥龍, 전주대학교수 T. 063-220-2303(室)

◎전남지역

- 金載洪, 蔚山, 後山,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468, T. 061-382-3445, 011-9603-3445
- 文在國, 南平, 心山,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624, T. 061-852-8474
- 李文甲, 仁川, 松齋,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1구, T. 061-867-2027, 011-647-2029
- 吳永在, 海州, 雪竹,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 597 T. 061-433-5139
- 金吉雄, 金寧, 瑞興, 화순군 동면 장동리 323 T. 061-373-7320, 011-609-1197
- 金正泰, 金海,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107-1, T. 061-473-2033, 011-604-1077
- 金圭浩, 慶州, 養浩, 화순군 춘양면 산간리 267, T. 061-372-7253
- 趙鏞敏, 咸安, 雲菴,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마골, T. 062-222-6474, 061-337-8850
- 梁柁, 南原, 省齊, 영광군 법성면 월산리 405
- 丁宗杓, 羅州, 慕蓮,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T. 061-363-3715
- 金永鎬, 光山, 春園,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T. 061-362-3564
- 馬洪淑, 長興, 芳原,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 林滿澤, 羅州, 淵齊,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770, T. 061-362-0039, 011-347-1039
- 許津, 陽川, 隱谷, 곡성군 석곡면 당월리 421, T. 061-363- 5065
- 金炳椀, 蔚山,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T. 061-382-8619
- 沈在植, 靑松, 擇山, 곡성군 입면 금산리 399, T. 061-362-6127, 011-9604-6127
- 沈雲植, 靑松, 雲齊,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T. 061-382-7847
- 李炅檣, 全州, 肯堂, 영광군 홍농읍 월암리,

- T. 061-356-7890, 016-657-5353
- 朱奎南, 新安, 忍堂, 영광군 흥농읍 상하리, T. 061-356-3153, 011-601-2153
 - 李根宰, 全州, 전남 여수시 둔덕동 한려주 공아파트 106동 1501호, T. 061-653-2382 019-312-5646
 - 李泳福, 公州, 雲亭, 전남 화순군 춘양면 석정리 197-16, T. 062-228-9657
 - 朴奇鎬, 密陽, 又玄, 전남 화순군 도암면 원천리 T. 061-373-0518
 - 梁亨根, 濟州, 春坡, 전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787, T. 061-382-7138
 - 梁仲鎬, 濟州,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379, T. 061-382-7588
 - 朴成鎬, 전남 담양군 대전면 덕진
 - 朴龍巖, 密城, 誠濟, 전남 영암군 미암면 춘동리, T. 061-473-4606
 - 宋在烈, 礪山, 春圃, 전남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 T. 061-833-3937
 - 朴文鎬, 密陽, 友堂, 전남 보성군 벌교읍 지동리 1352, T. 061-857-1936
 - 吳翼星, 濟州, 顧南,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2리, T. 061-362-8884
 - 任根亨, 豐川, 正齋, 전남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507-3 T. 061-382-3215, 016-9676-3216
 - 宋疇鎭, 洪州, 性齋, 담양군 남면 만원 1리 47-1 T. 061-381-8930, 011-649-0134

◎장성

- 金相鶴, 蔚山, 石坡,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1리, T. 061-393-4014
- 李五範, 咸平, 愍庵,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T. 061-394-2412
- 金炳孝, 蔚山, 東岩,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172, T. 061-393-8248, 016-9810-8248
- 金炳三, 蔚山, 善齋,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T. 061-394-0833
- 金洙煥, 金海, 龍岡,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100, T. 061-392-4700, 016-458-4700
- 金鎔普, 蔚山, 栗亭, 장성군 진원면 울곡리 61, T. 061-392-5222, 019-692-5222
- 金相杓, 蔚山, 加平, 장성군 진원면 학전리 평촌, T. 061-393-4449, 019-625-5115
- 林基玉, 兆陽, 南隱, 장성군 남면 월곡리 741, T. 061-392-3602
- 金麟奎, 蔚山, 栢堂,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T. 011-638-4394
- 金容益, 蔚山, 東隱,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429, T. 061-392-7621, 019-9160-7621
- 金南圭, 蔚山, 愚耕, 정성군 북이면 사거리 172
- 金在洙, 晉州, 貞軒,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115, T. 061-394-2242
- 奇宇天, 幸州, 松隱堂,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720, T. 061-394-2808
- 邊東焱, 黃州,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19 011-666-8113
- 劉載述, 江陵, 蘆松,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T. 061-392-8987
- 李載洙, 咸平, 鶴圓,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368, T. 061-394-2306
- 金福源, 商山, 湖隱, 장성군 삼서면 수양리 108, T. 061-394-1969, 011-219-1969
- 金炳勳, 蔚山, 欽齋,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82-7, T. 061-393-2645, 019-383-2645
- 張在賢, 仁同,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23-12, T. 061-392-1142, 011-603-9142
- 劉載善, 江陵, 林阜,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491, T. 061-394-4820, 019-640-4820
- 金炳坤, 蔚山, 靜山,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383, T. 061-394-1272
- 林載珩, 兆陽,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142 T. 061-392-4909, 011-614-8835
- 邊日燮, 黃州, 德齋,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128-7, T. 061-393-0627, 011-9440-0627
- 鄭鶴基, 河東, 礎亭, 장성군 삼서면 석마리 T. 019-605-2804

- 邊東銘, 黃州, 虎巖, 장성군 북이면 박산리 405, T. 061-393-1157
- 邊甲哲, 黃州,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T. 061-393-5204, 019-430-5204
- 金仁泳, 金海, 春圃, 장성군 남면 덕성리 T. 061-394-3344
- 金法洙, 光山,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북촌 T. 018-571-5720
- 宣在奕, 寶城, 笑巖, 장성군 남면 녹진리 338, T. 061-394-3934, 019-9146-3934
- 金源明, 光山, 雲岩,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333, T. 061-394-2077, 016-609-2077
- 羅國柱, 錦城, 淸軒,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T. 061-394-2302, 019-394-4699
- 李沂錫, 光山, 栢軒, 장성군 장성읍 청운 2동 120-11, T. 061-393-2008, 011-627-1856
- 宋炳植, 礪山, 松林, 장성군 동화면 송계리 300, T. 061-392-6391, 019-9164-5391
- 李相鏞, 慶州, 碧松, 장성군 동화면 송계리 473, T. 061-392-0436, 017-602-0436
- 金炳倫, 蔚山, 京巖,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 514, T. 061-392-6950, 011-643-8964
- 金應烈, 晋州, 漁雲,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80, T. 061-394-1937
- 邊夏燮, 黃州, 梅河,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42, T. 061-393-1313, 011-9718-2991
- 金容淳, 光山, 龍汀,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45, T. 061-394-2278, 011-647-2278
- 李準泳, 慶州, 誠軒,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129-5, T. 061-395-0755, 019-9177-1311
- 邊凡錫, 黃州, 次菴,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79-38, T. 061-393-2377, 017-601-2377
- 韓太燮, 淸州, 柳雲,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금형 477, T. 061-394-2175, 017-248-2175
- 金漢植, 光山, 愼菴,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동계 T. 061-393-5149
- 金相德, 蔚山,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T. 061-392-7511
- 梁熙澤, 南原, 平齋,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43, T. 061-393-5874, 016-9646-5838
- 金相元, 蔚山, 台岩,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973-17 충무 2동 T. 061-392-2804, 019-618-2804
- 朴來鎬, 泰仁, 蘆江, 장성군 장성읍 충무 2동 970-11, T. 062-232-6353, 061-393-8880
- 金相基, 蔚山,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남계, T. 062-302-5151, 017-650-5721
- 羅天柱, 錦城, 鳳耕,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T. 061-394-2315
- 孔庚鎬, 曲阜, 皓隱,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332, T. 062-512-1779, 018-610-1877
- 金道中, 蔚山, 中山,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21-1, T. 011-605-9754, 061-393-2227
- 金局泰, 蔚山, 坪軒,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신평, T. 061-393-1141, 011-615-5595
- 柳在甲, 文化, 森隱,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645, T. 061-394-2131, 016-640-2131
- 朴東熙, 密陽, 松岩,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48, T. 061-394-1313, 016-9340-7276
- 李炳玆, 光山, 淸下, 장성군 장성읍 매화동 1081, T. 061-392-1407
- 金盛洙, 蔚山, 牧井, 장성군 장성읍 청운1동 축협장, T. 061-393-6771, 061-393-2316
- 金炳千, 蔚山, 湖巖,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2리 260-1 T. 061-393-1298
- 朴判湧, 密城, 潘水堂, 장성군 동화면 통안리, T. 063-563-7908, 061-393-7575
- 邊炳淵, 黃州, 强庵,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T. 061-393-1141, 011-615-5595
- 金泳豐, 蔚山, 白松,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임곡부락, T. 062-651-7447, 011-645-7445
- 高光玉, 長興, 牛峰, 장성군 삼서면 우치리 T. 061-394-2079
- 金鍾權, 蔚山,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 高世中, 長興, 松谷,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옥천
- 奇椀舒, 幸州, 門湍,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172번지 T. 061-393-4579, 017-602-4579
- 崔南周, 全州,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25-4 T. 061-393-5598, 018-612-0574

- 金 溱, 蔚山,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630-2
T. 061-394-7774, 017-714-4774
- 柳壽煥, 文化,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218
T. 061-392-8184, 011-604-7975
- 金祥中, 蔚山, 呂古,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여고, T. 061-394-4709
- 金炳棺, 蔚山,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581
T. 061-393-1913, 016-433-7544
- 奉炳國, 河陰, 友松,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T. 061-394-2309, 011-427-2309

◎광주(동구)

- 奇百燮, 幸州, 牛峰, 광주시 동구 산수동
542-16, T. 062-528-0993
- 崔相玉, 全州, 裕堂, 광주시 동구 동명동
58, T. 062-222-1357, 062-527-8818
- 秋三得, 秋溪, 義齋, 광주시 동구 동명동
287-29, T. 062-223-8836
- 安晉吾, 竹山, 次山, 광주시 동구 산수동
463-19, T. 062-512-7475
- 南兌龍, 宜寧, 松泉, 광주시 동구 동명동
102-1, T. 062-227-6703, 227-4904
- 申亨澈, 平山, 立軒, 광주시 동구 학동
세라믹 1동 609, T. 062-672-7008, 227-6286
- 宋澈, 洪州, 海石, 광주시 동구 남동 156-1
T. 062-222-9189, 017-614-9189
- 曹相烈, 昌寧, 厚堂, 광주시 동구 대의동
57-5 T. 062-233-1313 016-606-5600
- 趙炳春, 金堤, 愚溪, 광주시 동구 동명동
200-16, 017-603-4090
- 金相憲, 蔚山, 德齊, 광주시 동구 산수 2동
534-21, T. 062-263-5216, 011-9620-5216
- 李圭珩, 全州, 松坡, 광주시 동구 소태동
573-25, T. 062-223-5480, 222-3130
- 張斗錫, 興德, 海觀, 광주시 동구 지산동
713-58, T. 062-227-9004, 224-6364
- 孔鍊雄, 曲阜, 瑞山, 광주시 동구 계림1동
572-10, T. 062-522-3395, 224-3393

- 金長洙, 善山, 晨溪, 광주시 동구 지산 1동
342-52, T. 062-232-5577, 016-622-5577
- 柳晏重, 文化, 春溪, 광주시 동구 산수 1동
539-31, T. 062-263-6709, 017-618-6709
- 朴景來, 珍原, 綠洋,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99-1 녹양서예원, T. 062-223-2266
- 梁原豪, 濟州, 松軒, 광주시 동구 궁동
38-9 송림서예, T. 062-232-8716, 223-0938
- 양해철, 濟州, 광주시 동구 산수동 84,
광명아파트 101동 203호
T. 062-062-228-1122, 011-611-9010
- 梁二鎬, 濟州, 광주시 동구 지산동 446-1
해광사진관, T. 062-227-0877, 017-610-0877
- 梁在斗, 濟州, 石晶, 광주시 동구 산수 1동
560-33, T. 062-223-7477
- 梁平默, 濟州, 광주시 동구 산수 1동
동진맨션 3-204호
- 閔祐植, 驪興, 守菴, 광주시 동구 지산동
삼성아파트 3동 1301호, T. 062-228-6767
- 金鍾灝, 金海, 南松, 광주시 동구 용산동
한국아파트 1509, T. 062-672-7008,
062-234-4407, 016-9345-4407

◎광주(서구)

- 尹炳甲, 驪州, 서구 화정동 신동아 아파트
102동 1004, T. 062-369-1390, 016-9565-1390
- 曹基元, 昌寧, 東川, 광주시 서구 양동
60-2 금호맨션 2- 111, T. 062-369-8816,
017-603-8816
- 林奉基, 羅州, 晩秋, 광주시 서구 화정2동
532-12 남화아파트 101-608
T.062-363-7855, 017-635-7855
- 尹淙根, 驪州, 義齊, 광주시 서구 양동
60-2, 금호맨션 3- 805, T.062-366-4311,
017-627-7008
- 尹漳鉉, 海南, 一沙, 광주시 서구 금호동
769 모아아파트 104-306, T.062-373-5356,

016-658-5357

- 姜仲錫, 晉州, 梅亭, 광주시 서구 상무 2동 432-15, T. 062-371-0108, 017-609-0108
- 李啓善, 咸平, 福山, 광주시 서구 화정4동 917-8, T. 062- 228-2106, 374-4190
- 奇世樂, 幸州, 滿齋, 광주시 서구 화정 4동 금호타운104-102 T. 062-375-4348, 011-609-6965
- 吳世圭, 海州, 修岡, 광주시 서구 유촌동 864 버들마을 A 107-601, T. 062-282-9653, 019-371-6653
- 柳鍾相, 高興, 玄供, 광주시 서구 화정동 신동아 A 103-85 T. 062-365-3287, 011-9865-3930
- 鄭尙允, 光州, 源齋, 광주시 서구 쌍촌동 956 비바체 모텔 T. 062-372-0889, 011-624-0277
- 金相德, 蔚山, 광주시 서구 쌍촌동 155 현대 아파트 102-602, T. 062-381-7799
- 宋河潤, 礪山, 曉江, 광주시 화정 2동 1072 금호아파트 103동 409호, T. 062-362-9527, 011-642-9525
- 金炳槿, 蔚山, 仁松, 광주시 서구 화정 1동 현대아파트 103-705, T. 062-373-2599, 018-600-2599
- 羅季柱, 錦城, 安石, 광주시 서구 쌍촌동 일신아파트 103-1602, T. 062-381-1510
- 李載英, 咸平, 竹山, 광주시 서구 쌍촌동 1동 328-23

◎광주(남구)

- 金容俊, 光山, 남구 진월동 대주아파트 101동 1402호 T. 062-673-2052, 019-662-2052
- 梁會亨, 濟州, 石棒, 광주시 남구 월산 5동 1012-38, T. 062-367-0080, 017-603-9353
- 金正熙, 淸道, 仁山, 광주시 남구 방림동 540-13, T. 062-676-0305
- 羅性洙, 羅州, 道川, 광주시 남구 월산 4동

907-9

- 吳仁均, 羅州, 鰲山, 광주시 남구 주월 2동 81-2 해태 APT 102-1004, T. 062-672-7008, 011-618-0005
- 金杜洙, 善山, 松隱, 광주시 남구 월산 4동 982-5 T. 062-363-6023
- 安基奉, 順興, 松軒, 광주시 남구 주월동 1149-4, T. 062-672-3369, 011-624-3107
- 李汀圭, 星州, 靑坡, 광주시 남구 월산 2동 902-5, T. 062-363-2535, 011-628-1372
- 梁在東, 濟州, 松雲, 광주시 남구 백운동 451-14, T. 062-225-4757, 671-4199
- 金宜洙, 蔚山, 광주시 남구 양림동 24-22, T. 062-652-0947, 011-601-7383
- 金容淑, 蔚山, 素巖, 광주시 남구 진월동 풍림 APT 101-608, T. 011-603-5724
- 金鍾會, 金海, 省齋, 광주시 남구 주월 1동 1169-8, T. 062-651-1747, 019-9147-1747
- 宋泰瑞, 礪山, 雪岡, 광주시 남구 서문로 287 진월아파트 2동 404호, T. 062-672-6178
- 朴泰根, 陰城, 西山, 광주시 남구 월산동 43-7, T. 062-941-2911, 011-603-1252
- 金勝圭, 蔚山, 광주시 남구 백운동 현대 APT 103-306, T. 062-676-0902, 019-9669-0902
- 吳炳祚, 羅州, 省齋, 광주시 남구 백운 1동 409 대흥사직 스카이 101동 302호, T. 062-571-1855, 011-636-5299
- 金容河, 蔚山, 광주시 남구 진월동 대주 아파트 106-405 T. 062-530-3840, 016-612-2103
- 高永斗, 長興, 三勉, 庚午, 광주시 남구 이장동 310, T. 062-674-0007, 011-601-0770
- 金相煥, 蔚山, 광주시 남구 송하동 금호 APT 103-1708, T. 062-676-3881, 016-608-8183
- 金沂洙, 蔚山, 호정, 광주시 남구 방림동 삼일 아파트 11동-303호
- 宋炫珠, 新平, 雨山, 광주시 남구 구동 65, T. 062-652-5781, 011-416-5781

- 河應善, 晉州, 松岩, 광주시 남구 월산 5동 1018-2, T. 062-364-4262, 011-279-6441
- 金梓洙, 蔚山, 광주시 남구 주월 1동 1206-3(교수), T. 062-673-6395, 016-705-6395
- 李激, 星州, 石泉, 광주시 남구 봉선동 1007-4, T. 062-671-2677
- 梁鎭禹, 濟州, 仁谷, 광주시 남구 서일동 253-20, T. 062-672-1518

◎ 광주(북구)

- 金晟洙, 蔚山, 북구 운암동 운암아파트 338-1012 T. 062-522-3985
- 奇共度, 幸州, 養正, 광주시 북구 중흥동 711-3
- 奇雲燮, 幸州, 惺菴, 광주시 북구 각하동 471 금호 3-606
T. 062-263-8054, 016-686-8054
- 金炳大, 蔚山, 芝村, 광주시 북구 용봉동 973-1 삼성아파트 6-1702, T. 062-574-4928
- 愼日範, 居昌, 松坡, 광주시 북구 풍향동 362-1(영암영보) T. 062-521-6126
- 曹龍根, 昌寧, 草菴, 광주시 북구 운암동 262-4, T. 062-525-2999
- 羅俊洙, 羅州, 石亭, 광주시 북구 문흥동 920 대주 아파트 205-1501
T. 062-262-6815, 011-9667-6815
- 李洪柱, 全州, 顧菴,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아파트 31-405
T. 062- 529-1314, 018-602-4773
- 鄭安鎭, 晉州, 湖堂, 광주시 북구 용봉동 모아미래도 102-103, T. 062-512- 2996
- 朴東圭, 密陽, 松圃, 광주시 북구 중흥 1동 746-16, T. 062-523-7731
- 金熙洙, 蔚山, 淸蔭, 광주시 북구 운암동 418-56, T. 062-512-0222
- 柳漢相, 文化, 東江, 광주시 북구 우산동 559-74, T. 062-529-1197
- 金鎭云, 蔚山, 木亭,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우미 1차 아파트 101-803
T. 062-521-8568, 019-628-8568
- 朴鎭龍, 順天, 素田, 광주시 북구 각하동 471 금호타운 12-903, T. 062-672-7009, 016-642-9575
- 金鏞植, 光山, 春溪, 광주시 북구 중흥동 1동 687-11, T. 062-512-6372
- 金鍾云, 蔚山, 海岩, 광주시 북구 우산동 191-4, T. 062-261-7676, 011-602-2091
- 金榛洙, 蔚山, 광주시 북구 삼각동 507-5, 016-603-2939
- 金文珍, 蔚山, 南松, 광주시 북구 신안동 482-29, T. 062-528-7001, 521-2228
- 金官中, 蔚山, 광주시 북구 풍향동 23-93, 금성맨션 703, 011-606-9699,
- 金昌洙, 蔚山, 峴松, 광주시 북구 운암동 동일 APT 1805호
T. 062- 521-0371, 019-616-0372
- 金鎭午, 蔚山, 星谷, 광주시 북구 운암동 삼호A 1동 204호, T. 062-524-6379
- 金寅洙, 蔚山,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 APT 39-201, T. 062-524-9766, 016-779-9766
- 沈愚慶, 靑松, 東谷, 광주시 북구 우산동 5-9, T. 062-261-8933, 011-624-8932
- 柳淇南, 高興, 修巖, 광주시 북구 문흥동 743-11, T. 062-262-4150, 011-9766-4150
- 金相燦, 蔚山, 鮮山,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APT 90-202
T. 062-521-2702, 019-345-2702
- 孔炳哲, 曲阜, 林泉, 광주시 북구 중흥동 642-2, T. 062-522-5100, 011-624-0030
- 徐明源, 達成, 淸灘, 광주시 북구 용봉동 1197-2, T. 062-232-1153, 512-2914
- 朴炯浩, 珍原, 竹巖, 광주시 북구 중흥동 658-9, T. 062-521-6969, 512-5382
- 金在俊, 蔚山, 淸軒, 광주시 북구 운암동 남일맨션 205호
T. 062-523-5286, 016-752-5286
- 金容大, 蔚山, 德川, 광주시 북구 신안동 238-39, T. 062-512-3349, 016-612-3349

- 金炳琰, 蔚山, 隱松, 광주시 북구 운암동 92-3, T. 062-529-7629, 019-9166-6345
- 金乙洙, 蔚山, 遜雲, 광주시 북구 두암 2동 600-3, T. 062-265-3650, 011-620-0900
- 金京洙, 蔚山, 광주시 북구 운암 2동 495-23, T. 062-523-2963, 016-602-2963
- 金鍾桓, 蔚山, 丹軒, 광주시 북구 임동 92-123, T. 062-512-3003, 016-603-0070
- 金治中, 蔚山, 月江,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아파트 91-1102, T. 062-523-2163
- 朴鍾達, 忠州, 松石, 광주시 북구 우산동 631-1현대아파트 105-403 T. 062-262-1779
- 閔京鎬, 驪興, 龍池, 광주시 북구 문흥동 대주아파트 102-312 T. 062-266-8961
- 梁吉鎬, 濟州, 광주시 북구 일곡동 진로아파트 101-302, T. 062-672-2646, 011-603-8984
- 梁홍일, 濟州, 광주시 북구 문흥동 상록아파트 107-808 T. 062-251-1183, 011-612-5183
- 梁太鎬, 濟州, 광주시 북구 풍향동 551 송광맨션 204호, T. 062-521-8263
- 金靈洙, 蔚山, 광주시 북구 매곡동 83-1 금호타운 105-706, T. 061-393-2874, 019-373-8235
- 柳鎮圭, 文化, 修雲, 광주시 북구 각하동 금호 아파트 8-903호, T. 062-361-4580, 017-615-8298
- 金宅洙, 蔚山, 嘉山, 광주시 북구 운암동 441-9, T. 062-523-7992, 011-636-7992
- 羅昌淳, 錦城, 撫山,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우미A 102동 505호, T. 062-672-7008, 062-527-0461
- 金正洙, 蔚山, 西雲,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국APT 105-804, T. 062-525-7385
- 金鍾得, 金海, 聖下, 광주시 북구 오치동 972-1 양지APT 3-102, T. 062-262-7868
- 許利鍾, 泰仁, 尙山, 광주시 북구 우산동 180-26, T. 062-261-5300

◎ 광주(광산구)

- 李官九, 全州, 南谷,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782, T. 062-952-8062
- 金永穆, 蔚山, 小軒,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주공아파트 505-1904, T. 062-956-0138
- 宋炳大, 礪山, 栢軒, 광주시 광산구 선동 513, T. 062-943-6581
- 金商順, 慶州, 復初, 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 631-3, T. 062-944-2394
- 李宰喆, 全州, 道隱, 광주시 광산구 명도동 279, T. 062-943-7517, 019-625-7517
- 曹瑄培, 昌寧, 惺軒, 광주시 광산구 북산동 421-1, T. 062-943-9898
- 朴溱夏, 密陽, 松軒,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839-3, T. 062-971-5705, 017-605-0578
- 梁哲承, 濟州, 松齋,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536-9 보라 아파트 1006, T. 062-941-9805
- 奇世潭, 幸州, 東隱, 광주시 광산구 신용동 317, T. 062-952-8011, 011-618-8014
- 李漢秀, 全義, 義松,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 320-1, T. 062-062-952-8873, 011-9613-9496
- 宋榮起, 광주시 광산구 송정 1동 557-1

◎ 海外

- 金炳均, 蔚山, 8226 Bahia BIna CT JacKsonville FL32256 001-904642-8949

… 特別會費 誠金內譯 …

〈姓名, 雅號, 住所, 金額〉

◎ 성금을 보내주신 분에게 지면을 통하여 감사 드립니다.

- | | |
|-------------------|---------------------|
| 1. 閔祐植 守菴 光州 50萬원 | 8. 金達洙 大宗會長 서울 50萬원 |
| 2. 金錫基 淸史 全州 5萬원 | 9. 金相駿 南溪 서울 125萬원 |
| 3. 崔宗春 春塘 任實 5萬원 | 10. 金相鴻 南嶺 서울 125萬원 |
| 4. 金炳寬 安松 淳昌 5萬원 | 11. 金相敦 南溫 서울 125萬원 |
| 5. 金正泰 靈巖 5萬원 | 12. 金相廈 南淖 서울 125萬원 |
| 6. 金晟洙 光州 7萬원 | 13. 安晉吾 次山 光州 20萬원 |
| 7. 金昌洙 和堂 長城 5萬원 | |

(산양회보 제1호 24쪽 성금내역 2항 邊溫葉은 邊溫燮이 정당하여 바로 잡습니다.)

… 入會를 환영합니다 …

〈姓名, 雅號, 本貫〉

- | | |
|-------------|-------------|
| 金成勳, 月浦, 光山 | 金炳坤, 靜山, 蔚山 |
| 金載洪, 後山, 蔚山 | 林在珩, 兆陽 |
| 文在國, 心山, 南平 | 吳永在, 雪竹, 海州 |
| 金容俊, 光山 | 金吉雄, 瑞興, 金寧 |
| 崔宗春, 春塘, 全州 | 邊日燮, 德齋, 黃州 |
| 尹炳甲, 驪州 | 金正泰, 金海 |
| 李文甲, 松齋, 仁川 | 金晟洙, 蔚山 |
| 金炳寬, 安松, 蔚山 | |
| 鄭鶴基, 礪亭, 河東 | |
| 金炳崙, 蔚山 | |

以上 03, 5, 30까지

알림

1. 본회 제9차 학술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다수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03년 7월 3일(목요일)10:00
- 장 소 : 광주향교 유림회관(광주시 남구 구동 22-3)
- 주 제 : 韓國 現代 儒敎의 課題
- 발표자 : 琴章泰 교수(서울대학교 종교학과)

2.원고모집안내

- 하서선생의 遺文遺詩를 비롯하여 학문과 사상에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함.
- 보낼곳 : 광주시 동구 대의동 57-5 4층 대동문화 내 필암서원산양회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 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3.회비입금계좌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 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 농협 645014-56-015348(예금주 : 필암서원 산양회 김병훈)

4.입회절차안내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회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계좌(645014-56-015348)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 (016-622-5577 총무 김장수)로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姓 名 :	本 貫 :	雅 號 :	生 年 月 日 :
住 所 :	전화번호 :	現 職 :	學 歷 및 經 歷 :
	자택 :		
	휴대폰 :		

- 2001년 발기인으로 참여한 분은 별도의 절차없이 입회비 30,000원을 계좌 입금하시면 됩니다.

필암서원 산양회 회장

筆巖書院

院長 高亨坤

執綱

別有司

金容淑

羅天柱

朴來鎬

李相鏞

李炳珉

楊萬鼎

朴鍾達

鄭雲炎

柳漢相

창업 1974년

마음까지 찍어주는...

사진마을 해광

가족사진·인상사진·흑백사진 전문

鼓岩後孫 梁二鎬

Tel. 062-227-0877 H.P 017-610-0877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46-1 법원빌, 지산동천주교회 앞